

'5·18' 철학적 성찰... 전시로 만난다

독 작가 바우어, '난징의 강간' 주제 우편예술 호출 ... 광주 '5·18' 답신

정현주 큐레이터 기획 '뮌헨에서 온 편지' 프로젝트 ... 31일까지 선이고운치과 갤러리



회사에 낯선 우편물이 하나 배달됐다. '뮌헨에서 온 편지'라는 타이틀이 달린 8페이지 분량의 신문 형태 인쇄물이었다. 부제로 적힌 글은 '호어스트 바우어의 호출, 그리고 철학적 답신'. 31일까지 광주 선이고운치과 갤러리에서 전시가, 전남대에서는 콜로키움에 열린다는 소식도 함께였다.

철학적 성찰과 전시가 어우러진 낯선 형식의 기획은 정현주(50) 독립큐레이터가 받은 작은 소포 꾸러미에서 시작됐다.

정씨는 지난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룹 '액티브아트'를 통해 인연을 맺은 재목 작가가 안향희씨로부터 소포를 받았다. 그 속에는 독일 작가 호어스트 바우어가 2010년에 안씨에게 보낸 우편예술 호출(Mail Art Call)과 우편예술 작품이 담겨 있었다.

국내에서는 낯선 우편예술은 한 작가가 특정 주제를 정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술가 그룹에게 메일로 호출을 보내면서 시작된다. 호출을 받은 작가는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형태로 작품을 만들어 답장을 보내고 그렇게 모아진 답신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다.

당시 바우어가 전 세계 39명의 예술가에

게 답신을 받은 우편예술의 주제는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학살, '난징의 강간'이었다. 소포를 받아든 정씨가 자연스레 떠올린 건 1980년 5월 18일이였다.

홍익대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정씨는 개인 작업과 함께 바느질을 활용한 그림책 삽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마침 정씨는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었고, 철학과 동료들과 함께 바우어의 호출에 '철학적' 답신을 보내기로 했다.

"처음 이 소포 꾸러미를 공유했을 때 어떤 '발안'을 하고 싶어하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광주라는 지역에서 폭력에 대한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정씨는 '1937년 12월13일과 1980년 5월 18일-그 기억들에 공명하는 네트워크'를 작성했고 박의연씨는 '난징과 5·18 이후, 규범성과 정체성에 관한 물음', 정소라씨는 '폭력, 그리고 악의 평범성', 김은주씨는 '학살에 대한 회상', 주선희씨는 '고통을 미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주제로 글을 썼다.

광주의 '답신'에 관심을 갖게 된 작가 바



'뮌헨에서 온 편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선이고운치과 갤러리를 찾은 큐레이터 정현주(왼쪽부터)씨와 작가 호어스트 바우어,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

우어는 광주를 직접 방문했고 지난 12일에는 전남대 어울호 기념강의실에서 작가와 철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콜로키움도 열렸다.

이번 전시는 특히 철학과 미술이 서로 소통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예술 형식의 도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전시와 토론회가 열리고, 신문까지 발간하

게 됐네요. 또 하나 5·18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민중미술이 감정적이라고 한다면, 철학적인 논의를 통해 이성적이고 차가운 형식으로 5월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바우어의 작품은 오는 31일까지 선이고운치과 갤러리에서 전시되며 현장에서 신문형태의 결과물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전해 들은 바우어 작가는 미국,

독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 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엽서크기의 판화 100점을 제작해 주최측에 전달했다.

한편 2012년 노자 '도덕경'과 '장경공'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낸 정씨는 광주를 소재로 한 책도 준비중이다. 문의 062-367-227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재단 교육지원센터

23·24일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전남문화예술재단 교육지원센터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매년 5월 넷째주)을 맞아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23~24일 전남여성플라자 강의실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은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주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미국 청소년역량강화센터(PYE) 최고경영자 찰리 머피씨와 강사 실비아 지오바노니씨가 강사로 나서 '예술을 활용한 창의촉진기술'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창의성 발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환경 조성, 실행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예술강사, 현직 교사를 비롯해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있는 전남도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280-584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김효삼 작 '슬프도록 찬란한 그대 봄'

정교한 목판화 투명한 수채화



박규환 작 '한가로움'

515갤러리, 김효삼·박규환 초대전...26일 갤러리음악회로 시작

515갤러리는 개관 1년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6월26일까지 한달간 수채화가 김효삼씨와 판화가 박규환씨를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

김씨의 수채화에는 흠뻑 젖어 모이고 다시 생성되는 자연의 오묘함이 담겨 있다. 수채물감과 물이 종이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번짐과 투명함에 표현된 이미지들은 자연의 서정성을 잘 표

현한다.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김씨는 9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현재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씨는 자연의 다양한 색과 이미지들을 목판화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캔버스를 위를 오가는 붓질보다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된 목판화 작품들에는 나무와 그림자, 남

도의 바다, 마을과 집, 들판과 사람 등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다.

박씨는 국제판화교류전, 대만 국제미니판화 초대전 등에 참여하는 등 뉴욕과 도쿄, 서울, 광주 등에서 수차례의 개인전을 가졌다.

26일 오후 7시 열리는 전시 오프닝은 갤러리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654-3003. /김경민기자 kki@

부모 세대 추억의 노래

김선희씨 '효·Love' 독창회...24일 금호아트홀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불렀던 노래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다. 나이가 들어서는 보통 대중가요를 많이 부르지만, 어쩌다 오래전 불렀던 가곡을 듣게 되면 금방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5월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음악회가 마련된다. 소프라노 김선희씨가 '효(孝)·Love'를 주제로 독창회를 갖는다. 24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김씨는 부모님들이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함께 부르고 배웠던 곡들로 레퍼토리를 짰다. '얼굴',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봄이 오면' 등 가곡과 슈베르트의 '음악에 부쳐', '송어' '라 스파 놀' 등을 만날 수 있으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주여 뜻대로' 등 성가곡도 부른다. 또 옛 민요 '언덕 위의 집', '대니보이'



김선희씨

등도 만날 수 있다. 나 원진(피아노), 강윤숙(재즈 피아노), 김도연(바이올린), 김성광(더블 베이스)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조선태를 거쳐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 베르첼리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김씨는 호남예술제 최고상, 이태리 로디 롱쿠르 2위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세대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선희의 한국가곡 CD, '쉽게 이해하는 가장 입문' 등을 펴냈다. 문의 010-2035-8584.

/김미은기자 mekim@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KORAIL
광주본부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협회

5월 31일(토)출발 당일 기차여행	6월 13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6월 20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고수동굴/구인사/온달관광지	부산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부석사/선비촌/안동하회마을	정동진/울릉도/독도	백담사/월정사/양떼목장 지역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06:30 광주역 출발	22:00 광주역 출발	23:50 광주역 출발	1일째 광주역 출발	1일째 광주역 출발
11:00 단양역 도착	04:30 용궁사/해운대/동백섬/APEC 누리마루/이기대 공원	05:30 풍기역 도착	2일째 정동진역 자유관광 (일출, 모래시계공원)	2일째 정동진역 자유관광 (일출, 모래시계공원)
16:00 단양 고수동굴/구인사/온달 관광지 관광	13:30 자갈치시장 관광	06:30 부석사/소수서원/선비촌/안동 하회마을 관광	11:30 독도 관광	09:00 백담사/통일전망대/화진포의성 관광
22:50 단양역 출발 / 광주역 도착	22:30 부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21:30 풍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17:30 울릉도 육로 관광 A코스	3일째 월정사/상원사/양떼목장/주문진어시장 관광
성인 75,000원~ 경로 73,000원~ 소아 70,000원~	성인(경로) 69,000원~ 소아 65,000원~	성인 77,000원~ 경로 75,000원~ 소아 74,000원~	3일째 울릉도 육로 관광 B코스/해안 산책로 관광	3일째 월정사/상원사/양떼목장/주문진어시장 관광
			02: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19: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320,000원~소아 290,000원~	성인 220,000원~소아 200,000원~